

도교육청,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 추진

학생들의 선택기회 확대 학생·학부모 등 의견수렴 원거리 통학여건 개선 목적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도내 일부 동지역과 읍지역의 남녀공학을 실시하지 않는 중학교들을 대상으로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내 시·군 가운데 시내권에 남녀공학 중학교가 한 곳도 없는 정읍·김제시의 동지역 중학교와 7개 시군의 읍지역 중학교가 주요 전환 추진대상이다.

현재 도내에서 남녀공학이 아닌 중학교는 전체 중학교(209교)의 18.7%인 39개교이며, 읍지역 중학교 26개교 중에서 69.2%인 18개교가 비공학인 중학교로 운영되며, 이는 전국 평균(39.0%)보다 약 2배 가량 높다.

이번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 추진은 중학교 선택기회 확대, 원거리 통학여건 개선과 학생들의 학습효과, 생활태

도, 학교생활 만족도 개선 등 교육적 효과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지난해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가 전국 11개 시도 39개 학교의 학생(2,216명), 교원(9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017년 9월 발표한 남녀공학과 비공학 중학생의 학교생활태도에 대한 인식분석'에 따르면, 학생들은 남녀공학이 비공학에 비해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형성에 있어 좀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중학생들의 학교생활태도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학습효과(수업분위기, 자기주도학습력, 과제수입및수업준비도, 활발한 발표력, 수업효과성), 생활태도(용의복장 단정도, 친구 등을 존중하는 태도, 폭력적 행동이나 상스러운 말 사용 자제, 학급일에 대한 협력적 참여, 근면한 태도), 학교생활 만족도(생활지도 수월성, 안정적인 학습분위기, 원만한 교우관계, 정서적 안정감)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공학이 비공학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뽑은 남녀공학의 좋은 점

으로는 양성에 대한 이해·배려·존중(22.8%), 조화로운 학교생활(상호보완, 16.5%), 수업태도 및 수업집중력 향상(15.8%), 정서적 안정(남학생, 10.1%) 등이었다.

남녀공학의 교육적 효과성은 단순히 선호성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성의 측면으로 양성평등교육, 민주주의 실현, 보편적 교육을 지향하는 측면을 강조하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한편 도내에서도 정읍 등 일부 지역에서는 수년전에 남녀공학 전환을 교육지원청에서 자체 추진하였으나, 학교군 내 사립중학교의 반대로 무산된 사례가 있어 사립학교 법인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실득 절차가 관건으로 보인다. 이에 도교육청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와 남녀공학 중학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향후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2018. 10~12월 교육지원청 자체 추진계획 수립 △2019. 상반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설문조사, 설명회, 공청회 등) △2019. 하반기

희망학교 대상 교육환경 개선과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교 조정(지역별 진행상황에 따라 시기 변동 가능) △2020년 또는 2021년에 남녀공학으로 전환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전북교육청은 26일 해당 지역 행정지원과장을 대상으로 전달 회의 및 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주, 군산, 익산시 동지역을 제외한 지역별 비공학 중학교는 △익산 4개교 △정읍 6개교 △김제 7개교 △진안 2개교 △순창 3개교 △고창 2개교 △부안 3개교 등 7개 시군에 분포하고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남녀공학으로 전환되면, 학교구성원 다양화로 참여형·협력형 수업의 활성화를 통한 2015 개정 교육과정 핵심역량 인 △의사소통 및 공동체 역량의 제고와 △학생 자치활동의 다양화 추수로 중학교 자유학기 운영 활성화가 기대되며, △성평등·인성·진로교육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장은정 학생이 '제3회 전라남도 친환경디자인상 작품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전주대 장은정 학생 전남 친환경디자인 대상 수상

전주대는 전남 순천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린 '제3회 전라남도 친환경디자인상 작품공모전'에서 전주대 장은정 학생(건축학과 5학년)이 대상을 수상하는 등 5명의 학생이 입선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을 받은 장은정 학생은 전북 작업장으로만 활용되는 여항리 선착장의 지형과 조수간만 차를 이용하여 새로운 휴식·체험공간을 구성했다. 특히, 만조에서 간조로 해수가 빠져나가는 6시간의 바다 모습에서 착안하여 작품, '6시간의 기억'을 구상하고 조도에 따라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6시간의 기억'은 관람객이 만조에는 바다를 보며 카페를 이용하고 조도가 중간 정도일 때는 자연 수영장, 전문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간조에는 아름다운 무인도, 목적

을 육지 길로 여행하기거나 조개, 굴 등 해조류 채취 등 체험 활동도 할 수 있게 구상했다. 심사위원들은 그 창의성과 작품성, 실현가능성, 완성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장은정 학생은 "기존의 선착장을 개선하여 목적의 매력을 알리고, 편의공간을 제공하고 싶었다"며, "이번 수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과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건축을 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밖에 전주대 신수빈 학생의 원주민과 외지인의 소통·공유 공간을 구상한 'PATCHWORK VILLAGE' 과 오병창 학생의 보육함에 휴식과 체험공간을 구상한 'FROM PORT TO PARK', 김은하 학생의 'FROM PORT TO PARK', 이창현 학생의 'BEING FLAT' 도 입선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성공 창업기업 육성 전문교육 '호음'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단장 권대규) '창업 아이템 사업화 창업 교육'이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호음을 얻고 있다.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 교육을 진행한 바 있는 창업지원단은 지난 23일에도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창업 트렌드 및 투자 환경 변화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 2018년도 창업아이템 사업화에 선정된 24명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및 유망 창업기업 투자, 지역 창업 유관기관 창업지원 등을 교육했다.

또한 '창업 초기 기업의 성공 가이드' 등 체계적 교육 과정과 함께 창업 초기 기업의 성공과 투자 운영 사례

중심 교육도 이어졌다. 특히 투자 IR 로드쇼 등 투자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투자를 받은 수혜기업을 비롯해 수출 전략 마케팅 통한 수출 사업화 성공한 기업 등과 네트워크를 통해 선정 기업 간 사업화 전략을 수립하는 등 창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호평을 받았다.

교육 참가자들은 "초기 창업자가 사업화 전략을 수립하는 데 이번 교육이 좋은 계기가 됐다"며 "유용한 정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비즈니스 전략 수립·운영 하는 데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의 '창업 아이템 사업화 창업 교육'이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호음을 얻고 있다.

즐기며 만지고 생각하는 '전북 수학체험 한마당' 함께해요

내일 KBS방송국 잔디광장서

제10회 전북 수학체험 한마당이 내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KBS전주방송총국 야외 잔디광장에서 열린다. '함께 즐기며 스스로 생각하는 수학'을 주제로 열린다.

수학체험 한마당은 2009년부터 매년 수학을 합동하고 어려워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 손으로 만지고 체험해보는 활동을 통해 수학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게 배우는 공간

을 만들어 주고 있다. 또한 수학교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변화와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즐거운 학습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올해 한마당은 지난해보다 수학체험부스가 더 다양해졌고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위한 키즈부스도 운영되며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수학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는 수학클리닉도 진행된다.

또한 수학적 내용을 몸으로 직접 움직이면서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게임이 초등과 중등으로 나누어 개인별 및 팀별로 열리는 동시에 가족 단위로 참여하는 소프트볼북이 쌓기도 진행된다. 더불어 2018년 전북학생통계활용대회에서 수상한 학생들의 작품도 전시된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다양한 소품을 이용하여 수학적 모형을 만들어내는 '수학구조물 만들기 대회'는 '수학으로 표현하는 전라북도'를 주제로 초중고 57팀이 참가, 실력을 뽐낼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이와 함께 한마당이 열리는 KBS전주방송총국에서는 주변 곳곳에서 수학을 찾아내는 '도시에서 찾는 수학'이라는 주제로 수학 산책도 병행된다. 행사에 참여하는 중·고등학생들에게 창의적 체험활동 확인서가 발급된다.

김영찬 전북과학교육원장은 "벌써 열 번째로 진행되는 수학체험 한마당은 학생들에게 함께 즐기며 만지고 생각하는 체험활동을 통해 수학이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는 교과라는 인식을 갖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고창고, 학교폭력 예방 '사과 데이' 실시

고창고등학교(교장 변우용)는 24일 '건강한 시작, 행복한 하루'를 주제로 '모두 함께'의 날 행사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과 데이'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학부모님들이 직접 만든 영양주먹밥과 음료를 마련해 따뜻한 아침 한 끼의 소중함과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을 마련하여 차가운 가을아침 공기를 포근하게 하고 만들었다.

또한 교내 동아리 '건강리더'와 함께 '학생 금연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 '학생 금연 캠페인'은 동아리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내 몸 안의 일산화탄소는?', '금연서약' 등 금연



의 유익함을 알리는 행사를 마련했다. 특히 '금연과 건강'을 주제로 한 우수 작품을 전시하여 건강의 소중함을 느끼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장은성 기자

제3회 전주한옥마을 통기타 라이브 음악 풍경

10월 27일(토) 오후 6시
전주 한옥마을 특설무대

주최: 사)전북문화진흥원

주관: 사)전북문화진흥원

문의: 사)전북문화진흥원
(☎ 063-288-9700)